



4강 진출 1라운드 탈락

‘설레발’ ‘망신살’

이강철 감독

대한민국 야구팀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3회 연속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한국은 13일 호주가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 B조 최종 4차전에서 체코를 8-3으로 꺾고 8강에 진출함에 따라 탈락이 확정됐다.

한국은 제1회 WBC에서 4강 진출, 제2회 WBC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이후 3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한국 야구는 이번 대회에서 만났을 그대로 드러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투수, 기본기가 실종된 야수진 등 총체적인 난맥을 그대로 노출했다.

세계 무대에서 맥뭉치는 선수들을 국내 프로야구에서 지켜보아려는 야구팬들의 심정은 이래 저래 착잡하게 됐다.

◇스트라이크 못던지는 투수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확인된 한국 투수들은 수준 미달이었다. 한국 야구는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마운드를 바탕으로 끈근한 수비 야구를 펼치는 팀이었다.

대한민국 야구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수모 스트라이크 못 던지는 투수·기본기 실종 야수·황당한 주루...총체적 난맥

2006년 제1회 WBC에서 한국이 ‘세계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박찬호, 서재응, 구대성 등 해외파들이 지키는 강력한 마운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팀 평균자책점(ERA)은 2.00으로 16개국 최강이었다.

WBC가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마운드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호주에 7-8로 패한 한국은 일본에는 4-13으로 콜드게임패 직전까지 가면서 2경기에서 무려 21점을 헌납했다.

일본전을 포함해 2게임에서 팀 평균자책점이 11.12로 현재 경기를 치른 10개 팀 중 꼴찌였다.

호주전에 7명의 투수를 투입하고도 패했던 한국은 일본전에서는 10명이 교대로 등판했지만, 아웃 카운트 하나 잡는 데도 급급했다.

일본 야구 평론가인 사토자키 도모야는 TV 아사히에 출연해 한일전 결과를 두고 “일본 전력에 강한 것도 있지만, 한국 리그는 주력 투수가 거의 외국인 선수라며 “에이스는커녕, KBO리그에서 자국 투수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시즌 리그 평균자책점 10위까지 선수 가운데 국내 선수가 3명뿐이라는 건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기본기 망각한 야수들
야구 대표팀의 강백호(kt wiz)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페이지와 미국 폭스스포츠 등 주요 외신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지난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WBC 본선 1라운드 호주전에서 나온 어처구니없는 플레이 때문이다.

MLB닷컴은 “한국은 2009 WBC 이후 처음으로 2라운드 진출을 노리고 있으나, 이날 호주에 7-8로 패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며 “10일 한일전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백호의 주루사 장면을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호주 2루수 로비 글렌디닝은 7회초 3점 홈런을 치고 7회말엔 베이스에서 발을 댄 강백호를 태그 아웃 처리하며 이날 승리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양의지(두산 베어스)와 김현수(LG 트윈스)는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김현수는 지난 12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1라운드 B조 체코와 3차전에서 8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김현수는 6-0으로 앞선 7회초 1사 1, 2루 위기에서 상대 팀 마테이 멘시크의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으려다 뒤로 빠졌다.

단타로 막을 수 있었던 타구는 찌꺼기 적지 2루 타가 됐다.

주전 포수 양의지는 7-2로 앞선 8회초 수비 2사 만루 위기에서 상대 팀 마르틴 체르벤카의 파울을 잡지 못했다.

체르벤카의 타구는 호주 쪽 더그아웃으로 높게 뛴데, 양의지는 더그아웃의 위치를 살피다가 공을 놓쳤다.마운드에 있던 이용찬(NC 다이노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곧바로 원바운드 공을 던졌고, 양의지는 이를 뒤로 흘려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연합뉴스



시즌 3호골...표효하는 이강인 이강인(마요르카)이 12일 스페인 마요르카의 비시트 마요르카 에스타디에서 열린 2022-2023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리가 25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와 홈 경기에서 1-1, 동점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연합뉴스

KIA 마운드 난조 ...한화와 시범경기 개막전 1-6 패배



KIA 타이거즈가 마운드 난조 속 패배로 시범경기 일정을 시작했다.

KIA는 13일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1-6 패배를 기록했다. 토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김도영이 첫 타석에서부터 담장을 넘기며 선취점을 만들었지만 마운드 싸움에서 밀렸다. 지난해 시범경기에서 고졸루키 사상 첫 타격왕에 등극했던 김도영이 이번에도 좋은 출발을 했다.

한화의 외국인 선수 펠릭스 페냐를 마주한 김도영이 초구 볼을 지켜본 뒤 2구째 헛스윙을 했다. 이어 스트라이크와 볼 하나씩을 지켜보면서 2볼-2스트라이크가 됐고, 5구째 김도영의 방망이가 돌아갔다. 공은 외야를 지나 좌측 담장 밖으로 떨어지면서 시범경기 시작과 함께 김도영의 홈런포가 기록됐다.

김도영은 3회에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구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후 두 번의 타석에서는 안타를 추가하지는 못

했지만 중견수 방향으로 공을 보내면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다.

김도영이 일찍 점수를 만들었지만 KIA는 남은 이닝에서 점수를 만들지 못했다.

마운드도 흔들렸다.

선발로 나온 임기영이 1회 2개의 피안타를 맞았고, 2회에는 연속 삼진 뒤 연달아 볼넷 3개를 허용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두 번째 투수로 나온 김승현은 첫 타자 채은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새 팀에서의 첫 피칭을 시작했다. 볼넷 하나는 내주기는 했지만 실점 없이 3회를 막았다. 하지만 연속 안타로 4회를 시작했고, 2루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승부가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최지민이 마운드를 물려받았지만 노수광에게 역전 적시타를 맞았고, 폭투까지 기록하는 등 점수는 1-4까지 벌어졌다.

임기영, 윤영철과 선발 경쟁 중인 좌완 김기훈도 시범경기 첫 날 모습을 드러냈지만, 실점을 남겼다.

김기훈은 6회 2사 2루에서 오그레디에게 우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허용했다.

9회초 KIA의 마지막 공격에서 변우혁의 좌측간 안타와 이우성의 볼넷이 나오기는 했지만 후속 타 불발로 경기는 1-6패배로 끝났다.

마운드 난조 속에도 눈길을 끈 장면은 있었다. 주인공은 바로 ‘고졸 루키’ 좌완 김기훈이었다.

좌완 스리쿼터인 좌완 김기훈은 지난 11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된 자체 연습경기에서 소크라테스-황대인-김석환을 상대로 최고 148km의 직구를 뿌리면서 삼자범퇴를 장식했다.

이날 호투를 발판 삼아 시범경기 선수단에 동행한 좌완 김기훈은 프로 첫 공식 경기에서 11개의 공으로 1이닝을 정리했다.

역시 올 시즌 신인인 문현빈을 5구 승부 끝에 좌익수 플라리로 돌려세웠고, 이원석과 오선진은 각각 2루 땅볼과 1루 땅볼로 처리했다.

KIA는 패배의 아쉬움 속에서도 투타에서 빛난 신예 선수들의 활약에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KIA는 14일 오후 2시 한화와 시범경기 2차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 첫 평가전 소집 명단 손흥민·이강인·김민재 선발 ... 이기제 첫 발탁

24일 콜롬비아·28일 우루과이전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달성했던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 대다수가 워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 부임 이후 첫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이기제(수원)와 월드컵 ‘에비 멤버’였던 오현규(셀틱)도 발탁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 무대가 될 3월 콜롬비아(24일), 우루과이(28일)와 A매치 2연전에 나설 26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달 27일 축구 대표팀의 새 사령탑에 올라 직접 선수를 살릴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명단에는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선

수가 대부분 선발됐다.

카타르 월드컵 명단과 비교하면 단 두 명이 달라졌는데, 윤종규(서울)와 홍철(대구) 대신 이기제와 오현규가 발탁됐다.

이기제는 전임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 시절에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A매치 2경기를 치른 바 있고, A매치 1경기를 소화한 오현규는 월드컵 최종 멤버에는 들지 못했으나 대표팀과 카타르에서 함께 훈련을 한 바 있다.

주장인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최근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강인(마요르카), 황희찬(울버햄프턴),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올림피아코스) 등 해외파도 그대로 이번 소집에 합류한다.

대표팀은 20일 파주 NFC(축구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 소집한다.

24일에는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에서 콜롬비아, 28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A매치 2연전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선 콜롬비아가 17위, 우루과이가 16위로 한국(25위)보다 높다.

역대 전적에서 한국은 콜롬비아를 상대로 4승 2무 1패를 기록했고, 우루과이엔 1승 2무 6패를 거뒀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9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수석코치, 파울로 스트링가라 코치, 마이클 김(한국명 김영민) 코치, 안드레아스 코프케 클리퍼 코치, 베르너 로이타드 피지컬 코치 등 코치진과 자두리 기술 자문을 소개했다.

‘사단’ 구성을 마친 클린스만 감독은 차두리 기술 자문과 12일 FC서울-울산 현대의 K리그 1 경기를 관전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연합뉴스